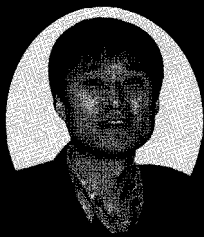


# 지피지기

## 바이러스의 양과 보조면역세포의 수를 알자



오명돈  
서울대 치대 교수

**싸움**에 이기려면 적수인 상대방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에이즈와 싸우는 환자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에이즈의 “지피지기”(知彼知己)-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자-를 생각해 봅시다.

에이즈와 싸우는 우리의 적은 바로 에이즈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입하여 면역세포를 파괴합니다. 면역세포는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일만에 죽어버립니다. 환자의 몸 속에서는 하루에 약 100억 개의 에이즈바이러스가 생산되므로 환자의 면역세포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점차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국 병균이 침입해서 병이 나거나, 암이 생기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얼마나 빨리 파괴되느냐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 “철수”와 “영이” 두 사람의 검사 결과, 면역세포수는 똑같이 400인데 바이러스 수는 “철수”가 10만, “영이”는 1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철수는 3년 후에, 영이는 6년 후에 에이즈가 발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병의 진행 속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바이러

스 수치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에이즈바이러스는 자기가 직접 환자를 괴롭히거나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10배 많은 “철수”가 “영이”보다 더 아프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면역세포수가 400이면 우리 몸이 병균을 이기기에 충분하므로 환자는 아무런 증세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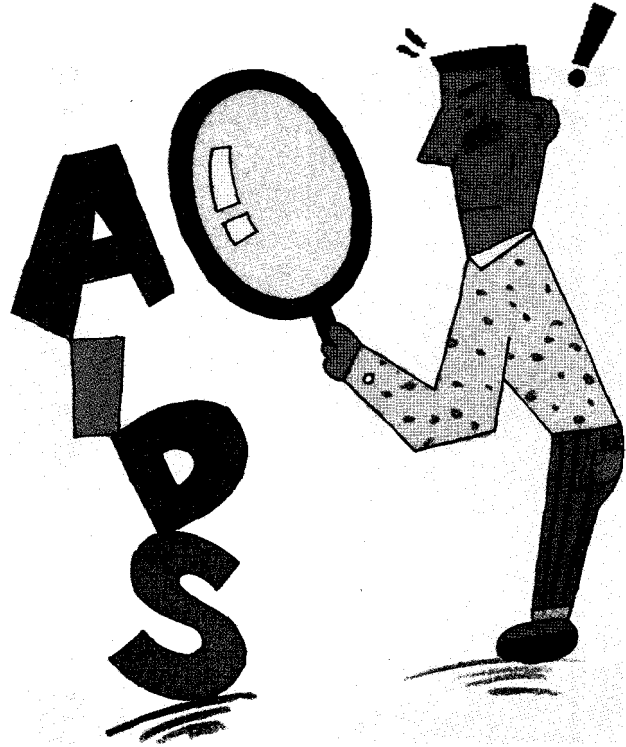
그렇다면, 환자의 몸속에 에이즈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냐고요? 환자의 피를 뽑아서 바이러스 양을 재는 검사를 이미 국내의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에이즈바이러스를 모두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제는 이미 10가지 이상 나와 있으며, 3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카테일 치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바이러스도 만만찮은 적수입니다. 만약에 한가지 약만 먹거나, 약을 꼬박꼬박 먹지 않고 거르거나, 정해진 용량보다 적게 먹으면 그 약에 대해서 내성을 나타냅니다. 치료 초기에 줄어들던 바이러스 수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담당의사는 바이러스 내성을 의심합니다. 내성 바이러스는 새로운 약으로 치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

성 바이러스에 잘 듣는 약을 고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테일 치료를 받는 환자는 담당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에 약을 먹었더니 배가 아프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면 환자 스스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줄이지 말고 즉시 담당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분해효소억제제는 정해진 용량대로 먹지 않을 바에는 아예 먹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카테일 치료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수가 줄더라도 환자는 바이러스가 없어진 것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려면 면역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병원균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한분은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입안에 늘 백태가 끼고,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이 아파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백태를 치료하는 곰팡이 약을 처방하면 일시적으로 백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약을 끊으면 다시 백태가 재발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카테일 치료를 하였는데, 치료 6개월이 지나서야 더 이상 백태가 재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태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세포가 다시 살아나는데 까지 6개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환자가 6개월 내내 초조하게 카테일 치료 효과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통해서 적군인 에이즈바이러스 수가 줄고 있다는 것도, 아군인 면역세포의 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사실도 치료 후 2개월이 지나서 부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결국에 건강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치료 후 2-3개월부터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카테일 치료를 받으면 보조면역세포가 1년 후에는 100개정도, 2년 후에는 200개정도 더 늘어납니다.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아군(보조면역세포)의 수는 물론 적군(에이즈바이러스)의 수를 3-6개월마다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도움(카테일 치료)을 청해야 합니다.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고, 보조면역세포수가 많은 사람도 바이러스 수치를 검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보조면역세포의 수가 500이라도 에이즈바이러스의 수가 매우 많다면, 이 사람의 면역기능은 머지않아 바닥이 나게 됩니다. 이런 환자는 면역기능이 바닥나기 전에 에이즈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를 시작해야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즈와의 싸움은 면역세포의 수와 바이러스의 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적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압시다! ④